

# “광화문광장서 실패 경험 함께 나눠요”

개인·사업·삶의 좌절과 실패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재창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가 14~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14일 오후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 재도전 지원, 문화공연과 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불확실한 미래의 새로운 동력-실패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실패문화 컨퍼런스에서 '실패학의 대가' 이이도연의 특강과 더불어 생물학으로 보는 인간의 실패와 도전(최재천 전 생태원장), 성공의 아이핀인 세종대왕의 조세개혁 정책 실패 사례 등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또 전국에서 뽑은 100명이 모여

행안부, 14일부터 3일간 실패박람회 개최

중기부와 공동 진행...다양한 행사들 예정

우리사회 '실패'를 토론하는 '백명 토론'과 이정렬 변호사, 홍현주 교수 등 법률·심리학 전문가와 함께 현지 행사와 비행정소년 출신 사회 적기업가가 모여 청소년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모색해보는 '정책살롱'이 마련돼 있다.

연금술, 전통설과 같이 당대의 '진리'였던 가짜과학이 현대 과학 발전에 밀려들어갔다는 발상의 전환 '과학의 실패 특별전', 플라스틱에 시름하는 지구를 주제로 한 'Planet or Plastic' 사진전, 손기정에 가려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남승룡 동메달리스트 등 1등에 가려진 주역전도 열린다.

사진을 통해 홀리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스타사진작가 조세현의 '희망프레임', 실패를 감수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한다는 손아람 작가의 '성공은 실패의 할머니', 국내 최초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기업 회생을 통해 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콘서트와 즉석공연(버스킹)을 들을 수 있다.

국내 피자사업을 처음 들여와 한 때 개인소유에 국내 1위였지만 수차례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시 사업에 임하고 있는 성신제피자의 성신제씨, 첫 식당부터 전제산을 맡아먹은 방승인 홍석천 등이

들려주는 '실패 뮤지컬'도 진행된다.

진로·인간관계·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는 '경청의 방'과 전문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실패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다. 프뉴마 상담 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직접 나와 고민 상담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현장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실패자가 낙오자라고 낙인찍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목적"이라며 "도전하려는 청년,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힘찬 도약을 응원함과 동시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도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고 밝아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11시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대책위 출범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2일 출범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20여 개 정당과 단체는 이날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삼성 이산화탄소 사고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시민사회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책위를 결성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지 감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 요구는 이번 사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의 화학물질 관리와 예방, 대응 체계 등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의 인적 구성을 더욱 확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검출할 수 있게 보강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사고 관련 작업 중지 명령, 노후설비 점검, 이산화탄소 저장소 안전관리, 안전설비 점검, 공장안전관리(PSM) 대상인 소화설비 관리와 점검 등도 요구했다.

이율리 삼성에 대해서도 위험물관리, 배관관리, 환경안전 전문가 채용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 서울김장문화제, 명품 김장김치 5kg씩 챙긴다

11월 2~4일 서울광장서... 시민 5000명 배추 100t 버무리기 진풍경



요리를 배우는 '셰프의 김장간' ▲외국인 김장 체험 '외국인 김장간' 등이다.

우리집 김장간은 대한민국 대표 김치명인이 직접 준비한 김치 속과 절임배추를 이용해 김장김치를 만드는 행사다. 명인의 김장 비법으로 만드는 김장김치를 저렴한 참가비(재료비 5kg 기준 3만원)로 가져갈 수 있다.

4인가구 참여시 20kg까지 가져갈 수 있어 옮겨줄 김장 해결이 가능하다. 별도 택배 발송장소가 마련돼 자신이 담긴 김치를 택배로 부칠 수 있다. 택배비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시는 올해 김장전사관을 확대해 팔도 김치를 실물로 제작해 전시한다. 대한민국김치연구소는 김치셰프 콘테스트를 연다.

행사와 참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김장문화제 누리집(www.seoulkimchi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김장문화제 사무국(02-337-9894)으로 하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서울김장문화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따뜻한 나눔을 중심으로 우리 고유의 김장문화를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내 최대 김장축제에 참가하면 김치 명인과 함께 담긴 김장 김치를 1인 5kg씩 자택으로 가져갈 수 있다.

시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제1회 서울김장문화제를 연다. 12일 밝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시는 13일부터 서울김장문화제 누리집(www.seoulkimchifestival.com)을 통해 서울김장문화제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김장체험 프로그램 참가 시민 ▲김장나눔 참가 단체 ▲축제준비부터 운영까지 함께 할 자원활동가 찐지들 ▲김치퓨전

푸드트럭 참가업체 등이다.

행사가 열리는 광장 중앙에선 시민 5000여명이 배추 100t을 버무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이날 만든 김장은 모두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무교로 일대는 '김치스트리트'로 변신한다. 팔도 김치를 구입할 수 있는 '팔도김치마켓'이 열리고 김치를 주제로 한 퓨전요리를 파는 '김치퓨전푸드트럭'이 등장한다.

김장체험을 신청한 시민은 본인이 선호하는 행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행사는 ▲대한민국 명인들의 김장 비법을 엿보는 명인의 김장간 ▲명인들의 레시피를 배우 직접 담그고 가져가는 '우리집 김장간' ▲전문 셰프에게 이색 김치

## 올해 서울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 마트比 저렴

서울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판공사(사장 박현출)는 서울시내 26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61곳을 대상으로 한 추석 차례상차림 비용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이 5일 서울시 자치구별로 2군데씩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등을 직접 방문해 주요 추석 성수품 소매비용을 조사했다.

간소화 추세를 반영해 추석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9만2676원으로 전년 대비 3.9% 상승,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2만1285원으로 전년 대비 2.7% 하락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3% 저렴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무·배추·대파·시금치 등 일반 채소류 가격 상승폭이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약과·다식·부침가루 등 가공 식품류 가격이 하락했다.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17만9975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19% 낮았다.

자치구별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서대문·서초·중랑구가 평균 21만 원대로 높은 반면 용산·동작·동대문구는 평균 16만 원대로 낮은 편이었다.

## 이화영 경기부지사 "북한 특수 반드시 온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북한 경제를 통한 남한의 경제 특수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날 오전 7시 수원 이비스엠메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 기업인클럽 초청 강연에서 "독일 통일로 국민소득이 낮아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통일 특수'로 성장 가도를 달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가 베트남 특수나 중동 특수로 경제 위기를 넘겼듯이 북한 경제를 통한 남한의 경제 특수는 반드시 찾아온다"며 "경기집체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측면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바리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정책 하나가 개성관광이다. 개성관광 시대가 열리면 도내에서 하루 숙박하는 1박2일 관광 상품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며 "끊임없이 남북협력과 소득·일자리 문제를 연관 지으려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지사는 도가 추진하는 평화정책으로 경의선·경원선 철도 연결, 주한미군 반환공역지 개발, 북부 도로·산업단지 건설 등을 설명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